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사랑의교회 - 이동기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사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탄)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목사



주일에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예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3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내게 강같은 평화”
“교회여 일어나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기도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봉헌찬양

1,3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마태복음 14:22-27

제목

“풍랑 속의 믿음”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찬송

1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부: “나는 믿네”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5. 2021년 여름성경학교(VBS)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6/25(금)-27(주일) / 대상: Preschool 부터 현재 6학년 자녀

회비: \$30 (가능한 체크로 해 주세요. Pay to TFBC, Memo: VBS)

등록은 교회 로비와 온라인(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자녀들에게는
VBS Kit(T-shirt, Crafts자료, 찬양CD 등)를 가정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6. **유치부 유년부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7월부터 유치부와 유년부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이에 주일에 유치부와 유년부를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9:00-10:40 시간대나
혹은 주일 10:40-12:20 시간대 중에서 선택하여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 바랍니다.)

7. **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때 주차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 바랍니다.

8.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현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수수료 현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현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현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우리교회는 안전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2) 입장 철차를 지켜주세요(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

(3)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자리에 앉아주세요.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득남:** 김하준(김성현/전혜민성도) 6/5(토) 출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 故 김옥희성도(지형펠링 성도 모친) 6/7(월) 한국시간에 질병으로 소천.

◇ **중보:** Tom Bayliss, Floyd Richardson, Etienne Rudegear, Anthony Milas, Eric Mose,
김순남, 최재돈, 오창자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아청년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 새벽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예배를 제공합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주일(6/6) 사무처리회에 참석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처리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 사역과 4대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임시예산 승인 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찬성 174표, 반대 0표, 기권 1표)
 - 2021년 임시임명집사 승인 건: 2020년 임시임명집사를 2021년 임시임명집사로 세우는 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0표)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및 구성 건: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11명이 청빙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 청빙위원: 팻 바셀로나, 록 최, 리차드 데드릿지, 태미 브룩, 단 프레이더, 마이클 자쿠백, 정수 데호스, 철욱 핏서, 송인상, 백영기, 김 선 (이상 11명 선출), 행정목사(투표권 없음)
- ※ 청빙위원장: 팻 바셀로나 ※ 청빙위원회 서기: 록 최 ※ 청빙광고: 6/8(화)~7/31(토)
- ※ 청빙광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ather's Day(아버지 주일) 예배: 6/20(주일) 1부, 2부, 3부** 각각 예배 드립니다. 연합예배가 아니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유정옥 집사
 제목 [누가복음 강해 27: 평강]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본문 누가복음 8:16-25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도 Prayer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수요 유정옥 집사	1부 인숙랭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6/14(월)	출애굽기25:23-40	안재훈 목사	6/15(화)	출애굽기26:1-14	정주영 목사
6/16(수)	출애굽기26:15-37	전우일 목사	6/17(목)	출애굽기27:1-21	정주영 목사
6/18(금)	출애굽기28:1-14	남궁곤 목사	6/19(토)	출애굽기28:15-30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 **본문:** 시편 139:14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성도의 감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감사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은 먼저 1절부터 4절 까지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 보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기준이 왜 성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까?

사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불평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만 당해도 금방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감사는, 자기 자신의 평가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에 적어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여겨지기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그 때에도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문장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말로서 나의 존재를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감사(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2.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이어서 14절 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 지점은 영혼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러한 고백은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에서부터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질문:**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사무처리회를 위한 [21일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영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많이 회복 되었습니다. 늘 금식할 때 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우선순위를 또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살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해야만 비로써 알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확실히 평소보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나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금식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내 영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 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가만히 서서', 함께 보게 되어 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풀어보자면, 사무처리회를 통

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질 고백은 다윗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도 고백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 눈 앞에 펼쳐지게 될 현실이(우리가 육의 눈으로 평가하는 현실), 마치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이켜서 가게 된 그 바다 앞, 즉, **'광야에서 갇힌 바 되어버린'**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 홍해 바다 앞에 가 있게 되었을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고백은 **'내 영혼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 갑자기 돌이켜 가게 된 그 막막한 바다 앞에서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홍해 바다도 가르시며,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 '감사'였습니다.** 눈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인생에서 보기도 힘든 큰 기적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적'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님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보게 되더라도 다윗처럼 '영혼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더라도, 혹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여겨지게 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든 결국 저와 여러분에 입에 남겨져야 할 말은 '영혼의 감사'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어서 다윗은 또 다시 영혼으로 찬양하며,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눈으로 먼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기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게 되어서 모두가 다윗처럼, 영혼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그 바다'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라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곳에 씨를 심어서 잘 자라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생각도 다 아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그 곳에도 아름다운 꽃이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그 이름 모를 들 풀,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느끼게 되어 감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교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들에 퍼 있는 저 꽃 송이 하나만 보아도 영혼의 감사가 회복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놓여진 상황속에서 감사를 찾지 말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며, 들에 핀 들 풀도 입히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맘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영혼으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윗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가장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묵상 질문]

1. 현재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4.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여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